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 방안 : 전남대를 중심으로

정 상 우
전남대 의학과 교수, 학생처장

1. '취업지도 종합대책'의 내용

1997년도 2월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문은 경기 하강에 따른 기업체의 고용인력 감량 등으로 더욱 좁기만 하다. 특히 기업체들이 채용방법을 변화시키면서 1차 서류전형에서 대거 탈락시키는 등 지방대학생들의 취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에서는 '취업지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취업주간'을 설정하여 각종 취업관련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대생 취업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취업환경은 산업기반의 취약 등으로 인하여 고용인력 수요가 많지 않아 취업률은 그리 높지 않다. 이제 고학력자들의 취업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어버린 지금 우리 대학은 '취업률 80% 달성'을 위한 취업지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 아래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우수학생 적극 유치

교육시장 개방의 여파와 인구통계학상 21세기에는 대학 정원이 응시생보다 많아져 대학 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학생 유치는 취업률 제고와 학교 이미지 향상의 토대가 되며,

대학의 생존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따라서 장학제도의 홍보 강화와 장학기금 모금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고교방문 홍보활동과 대학설명회를 가졌고, 올 여름에는 학과 중심의 고교생 여름학교를 개설하고자 한다.

2) 취업준비의 조기화 유도

기존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하며,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강사를 초청하여 취업·진로 특강을 통해 취업준비 조기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저학년을 위한 『진로가이드』 발간과 함께 고학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진로안내』를 발간하여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정원의 탄력적 운용과 교육과정 개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 간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으로서, 대학의 구조적 문제인 비인기학과(사회수요 측면)에 대한 정원을 사회수요 중심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하여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신입생 모집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정원연동제'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유사학과의 적극적 통합과 새로운 교과운영을 통하여 학부제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대학을 다양화·특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도 이제는 인격적 라이선스와 더불어 기술적 라이선스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4) '취업률 실적 평가제' 도입

지금까지는 대학본부 장학실에서 수립한 취업지도 대책을 취업지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왔다. 그러나 학생지도의 근간인 학과에서 이에 대해 공동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각 학과에서 '취업·진로 지도대책'을 수립하고, 단과대학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종합대책으로 수립하며, 각 단과대학에서 보고한 대책을 종합하여 '취업·진로 지도대책'을 작성,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7년 3월까지 확정한다. 각 학과 및 단과대에서 수립한 취업·진로 지도대책과 특별히 취업률이 제고된 상위 10~20위 학과를 심사 평가하여 소정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5) 어학 및 사회봉사활동 학점화

취업에서 어학은 대단히 중요한 요건으로서 이의 능력 배양 없이는 취업률 제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어학 능력 배양을 위하여 pass/fail에 의한 '졸업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어학교육 강화를 위하여 TOFEL, TOEIC, G-TELP, JPT 등의 시험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얻으면 졸업 이수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며, 해외어학연수 경력도 정규 교과목 또는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 자매대학과 사전 협의 아래 대학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동·하계 방학 기간에 단체 해외 연수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연수 수료생들에게 이수학점을 부여한다. 특히 일정 수준의 어문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중 해외유학을 의무화하여 외국어 실력은 물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각종 장학금, 예를 들면 '등록금재원 대여 무이자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들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인간화 시대에 무엇보다도 사회에 봉사할 줄 알고 세계 무대에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으므로 사회봉사라는 교양선택 과목을 개설한다.

6) 면접시험 대비책 강화

1995년부터 채용방법 파괴의 열풍 속에서 대다수 기업체들의 전형방법이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채용전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접시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생활연구소가 이를 전담하여 지도하는데, 국내 유수기업체별로 다양한 면접시험 및 인·적성검사를 치르고 있으므로 그룹별·회사별 특징을 중심으로 사례별 대책(30개 그룹 정도)을 수립하였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급의 선배 동문 등 면접관을 직접 초청한 모의면접, 올바른 메이크업 방법 강좌 등을 실시함으로써 대처 능력 배양과 아울러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방법으로 특별지도하고 있다.

7)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현 취업정보센터는 학내 전산망 완료와 더불어 LG-GINS 및 PC 통신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전용 취업정보 검색용 PC와 프린터 그리고 복사기를 비치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취업정보 검색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제공하고자 취업, 부직 등 의뢰건 전체를 전산망에 수록하여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정보 파일 및 취업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생들의 취업정보센터 이용을 위하여 학생 출입이 많은 도서관·학생회관·기숙사에 취업정보 단말기 및 취업게시판을 확충하였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LG-GINS 등 전문 취업정보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대체로 비슷한 테이블로 구성되어 취업정보 관리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대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업전산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입학과 동시에 진로 및 취업카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졸업 때까지 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관한 사항이 전산으로 기록 유지되고, 각종 통계 처리와 외부 시스템과의 정보교류가 될 수 있도록 확장이 가능한 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8) 대외 이미지 개선

여러 가지로 굴절된 대학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총장을 비롯하여 전 대학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직자 및 원로교수를 중심으로 기업체 및 기관 특별 방문활동을 전개하며, 우리 대학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소개하여 공부하는 대학, 연구하는 대학으로의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9) '대외협력정보체제' 구축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인간화 시대에 정보는 조직의 발전과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보화를 위해 동문선배의 취업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총동창회, 단과대 동창회, 학과 동창회, 재직기관 동창회, 친목회 등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는 소그룹을 조직화하고, '정보 공유화'로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외협력정보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10) '학사인증제' 도입

21세기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경쟁력 있는 인력의 양성으로 학교 특성화를 기하며, 경영실무·컴퓨터·실무외국어 등을 주축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이에 각 부문별로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보검색사반·공무원준비반·전문직종반·기타 강좌를 개설하여 적극 지원한다.

2. 여학생 취업률 제고

우리 대학의 남녀 학생 구성비는 약 50:50이지만, 여학생의 취업률은 남학생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기업체 채용에서 남녀차별 관행이 여전히 상존하는 현실을 볼 때, 여학생의 취업률 제고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과 공기업의 여성채용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기업체에서도 여성인력이 남성인력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다고 보는 직무에 대하여는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취업준비를 좀더 철저히 한다면 여학생의 취업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학년 때부터 적성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준비를 시작하도록 유도하며, 특히 여학생 자신의 능력 특화, 풍부한 경험쌓기,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어학연수를 대폭 확대하여 여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과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업 희망 재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해외 연수를 통하여 자신을 계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모의시험 등을 통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있는 현행 해외 어학연수제도를 저학년에 우선 배려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며, 여성인력이 남성인력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다고 보는 디자인·홍보·전산 부문 등 특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획득하고 경험을 쌓도록 한다.

3. 학생의 자세

학생들 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적극 권장한다.

첫째, 저학년 때에 적성과 전공을 토대로 조기에 진로를 결정함으로써 일찍부터 취업준비와 학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둘째,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직장과 직종을 선택하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즉 어떤 능력과 기능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실력을 양성해 나간다.

셋째, 외국어와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배양해 나간다. 취업경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외국어와 컴퓨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입학해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TOEIC은 800점대 수준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며, 컴퓨터 활용 능력은 과거 워드프로세서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 최소한 PC 통신, 인터넷, 통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대기업 선호에서 탈피하여 성장 가능성 있는 중견 중소기업을 선택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정부와 정부 투자기관에 적극 진

출한다.

여섯째,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취업경쟁에서 유리하도록 수업 후나 동·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준비, 취득하도록 한다.

일곱째, 취업정보 수집 방법을 정기간행물, 신문광고 등 인쇄매체를 통한 수집뿐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등으로 확장한다. 이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기업체들이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여 상시채용하는 등 다각적인 채용방법의 변화에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 삼성 그룹의 경우 인터넷 접수자만 해도 6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96년 11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발표한 PCT (개인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시험)의 시행은 취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이 또다른 정보 형태를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덟째, 면접시험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그리고 면접시험 형태로 채용하고 있음은 이미 말한 바 있으나, 기업체별로 특이한 형태에 새로운 기법들이 다양하므로 이에 발맞추어 모의훈련을 통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4. 맺음말

요즘은 취업의 문이 바늘구멍과 같다고들 한다. 취업전선에 나선 학생들이 지방대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홀대받는 경우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나, 우리 대학은 위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기업체도 산업기반이 열악한 이 지역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기업체에서는 재경 명문대학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할당제' 등을 고려한 현지 채용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대학에서도 교수·직원·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대학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위문화를 추방하고 면학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으로서 정원의 탄력적 운용과 학사인증제 등을 도입, 대학의 특성화에 주력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과감히 예산을 투자할 것이다. 학생 역시 대학 이미지와 지방대 차별 등의 심리적 부담감을 갖지 않고 실력이 있는 학생은 어느 기업체, 기관에서나 채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신의 능력을 상품화하는 지혜를 함양하고, 취업준비에 일찍부터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학은 학생 취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 역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어야 것이다.

정상우/전남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 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처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일반 병리학』 등이 있고,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and nucleolar organizer regions(NORs) in benign, atypical and malignant meningiomas"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